조성원가 평당 139만원…입주 업종도 제한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미분양 우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산학연클러스터'의 분양 실적이 극히 저조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는 139만원의 높은 조성원가와 정보통신·농업생명 분야로 입주 기관이 제한돼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산학연클러스터 전체 부지 376만1000㎡중 분양된 면적은 12%인 46만7000㎡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10곳 중 부산만 100% 분양이 완료됐고 대구는 9.2%, 울산은 8.9%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전북 등 나머지 7곳은 1필지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주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는 지난해 9월 당초 36만178㎡에서 44만7781㎡로 8만7603㎡ 확대했다.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늘리면 전체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75만3420㎡에서 71만6570㎡로 3만6850㎡ 줄였고, 공원·녹지 면적도 당초(25.4%)보다 0.4%(3만5008㎡) 줄여 최소 녹지율(25%)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경했다. 또 혁신도시 골프장 내 단독주택용지(페어웨이빌리지)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힘들 것을 우려, 당초보다 3분의 1 수준(9만8739㎡→3만2300㎡)으로 축소했다.

LH는 '공원·녹지면적을 조정, 클러스터 용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상공급면적을 확대해 용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맞춰 설계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경안은 녹지 조정 비율이 0.4% 수준에 머무른데다, 면적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666억)도 전체 사업비(1조4841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부가 밝혔던 '평균 분양가 14.3% 인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조성원가가 평당 139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결정됐고, 교통여건마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견줘 불리해 경쟁력이 떨어져 자칫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과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부지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높은 조성원가와 교통 등 입지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클러스터 용지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미분양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 조성 지원 예산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7~2011년 5년간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은 909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330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전남, 대구, 울산,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년 평균 지원액인 613억원에도 못 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물운송노동자 결의대회 최근 서울역광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 법제화, 화물운송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해조류·전복 전남 수산물 '수출 효자'

해조류와 전복 등 전남 대표 수산물이 수출 전략 품종으로 두각을 내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7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총 수출실적은 208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특히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는 101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24만달러)보다 62.5%나 늘었고 전복도 같은 기간 638만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년 동기(391만달러)보다 63.2% 급상승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는 최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다, 어가의 안정적인 공급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양식시설의 기업·규모화 추진과 함께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연간 100만t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특히 해조류와 전복은 국내 최대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양식어장 확대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수출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그린산단' 조성 탄력

조사설계 용역 재개

연말께 토지보상 전망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했던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LH가 재무여건 악화로 전체 신규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지난해 5월 중단했던 '빛그린산단 조사설계용역'을 지난 16일 재개했다.

이에 따라 LH는 연내에 빛그린산단 보상 계획 공고를 해 이르면 연말께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빛그린산단 조사설계용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수요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설계 등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용역으로, 지난 2008년 12월 시작돼 2012년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설계비' 12억5400만원이 확보돼 빛그린산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의원은 "빛그린산단 사업이 재개돼 그동안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던 광산구와 함평군 주민들의 큰 근심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나 L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일원에 60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광산업과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 최첨단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인코리아 회생자금 마련 나섰다

160억대 여주·천안 부화장 매각 추진

광주·전남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화인코리아가 회생 자금 마련을 위해 160억원대 여주와 천안 부화장을 매각할 계획이다.

18일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여주부화장과 천안부화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광주지법에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신청을 냈다. 여주부화장의 감정평가액은 101억7000만원, 천안부화장은 57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화인코리아는 담보채권을 올해 안에 갚기 위해 부화장 매각을 추진했으나 다수 채권을 보유한 사조그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사조그룹이 지난 14일 더 이상 임의매각에 반대하지 않기로 해 매각을 재추진하게 됐다. 화인코리아는 부화장이 매각되더라도 오리 병아리 확보, 원가 경쟁력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법원 승인을 얻어 임의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회사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담보채권을 100%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산절차 중에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무담보 채권도 연체이자를 뺀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 자력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5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6	10	14	25	40	1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55,842,233	7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41,995,999	46
3	5개 숫자 일치	1,260,977	1,532
4	4개 숫자 일치	50,000	73,084
5	3개 숫자 일치	5,000	1,167,264

대한조선 조선 최고권위 '조선기술사' 배출

선체설계팀 장창진 부장

대한조선은 조선 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시험인 '조선기술사' 시험에 선체설계팀장 장창진 부장(41)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선기술사 합격자는 3명으로, 국가공인 기술자격시험 중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려졌다.

설계 19년째 베테랑 엔지니어인 장 부장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아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都·農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1990년 97.2% → 2010년 66.8%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양극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212만1000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809만2000원의 66.8%에 불과했다.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지난 1990년 97.2%(도시근로자 1134만3000원, 농가소득 1102만6000원)에 이르렀으나 1995년 95.7%(2277만1000원 : 2180만3000원), 2000년 80.5%(2865만9000원 : 2307만2000원), 2005년 78.2%(3902만 5000원 : 3050만3000원), 작년 66.8%로 계속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74.2%(3569만6000원)에 그쳤으나 농가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지난 1990년 88.4%(1134만3000원 : 1002만 3000원)에 서 2000년 65.9%(2865만9000원 : 1887만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2005년 71.8%(3902만5000원 : 2802만8000원), 작년엔 74.2%로 상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